

“미국 선진육상 노하우, 한국에 전할 것”

아시아계임서 멀리뛰기 2연속 금
美 유학 후 교수·육상 감독 활동
텔레즈 등 스타 지도자들에 사사
보장된 미래 마다하고 영구 귀국
“육상 후배 양성에 온몸 던지겠다”

“칼 루이스를 키워냈던 탐 텔레즈를 비롯한 세계적 지도자들에게 배운 이론과 기술, 미국 대학육상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습득한 현장 경험을 최대한 살려 우리 육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계임 육상 남자 멀리뛰기 2연패의 주역 ‘인간 새’ 김종일(59)이 돌아왔다. 미국 미시간주 캘빈대학교 명예교수인 그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멀리뛰기에서 모두 7m94를 뛰어 연속 우승한 바 있다.

김종일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뒤 이듬해 1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도움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워싱턴주립대에서 6개월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외국인 영어능력평가시험(GRE)을 통과했다. 이어 그해 9월 학기에 이 대학 체육대학 석사과정(체육행정)에 입학해 1993년 이수했고, 바로 박사과정(교육행정)에 도전해 1996년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캘빈대 교수 겸 육상 감독으로 채용돼 2020년까지 23년간 활동한 그는 31년 만에 영구 귀국했다. 정년이 없는 보장된 미래를 마다한 채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일을 최근 만났다.

-안락한 삶 대신 귀국을 택한 배경이 궁금하다.

“나의 오늘을 있게 한 고국을 위해 그간 쌓은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다. 지금 살고 있는 성남 분당의 아파트를 86년 아시안게임 우승 포상금으로 마련했다. 미국 유학비도 주변의 지원을 받았다. 국가로부터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

김종일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72년 육상에 입문했고, 이듬해 소년체전 높이뛰기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진천중 시절인 1978년 소년체전에서 높이뛰기(1m94), 멀리뛰기(6m80) 남중부 신기록



아시아계임 육상 남자 멀리뛰기 2연패의 주역 김종일이 31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최근 영구 귀국했다. 아래 왼쪽 사진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공중동작을 펼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수상 후 모습. 사진제공 | 김종일

으로 우승했다. 청주고 1학년이던 1979년에는 멀리뛰기 남고부 신기록(7m20)을 수립했다. 두루 성과를 낸 그가 멀리뛰기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178cm의 체격에선 멀리뛰기가 유망하다”는 지도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시절이 참 화려했다. ‘청주고를 다니던 1980년 처음 국가대표가 됐다. 1958년 도쿄아시안게임 멀리뛰기 우승자인 서영주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1981년 멕시코 청소년육상대회에서 7m98을 뛰어 한 국가기록(현재 한국기록은 김택현의 8m22)을 작성했다. 1982년 서말구(남자 100m 한국기록 보유자) 선배의 권유로 동아대에 진학했는데, 그해 11월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선 7m94로 한국육상 첫 금메달을

땀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도 같은 기록으로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응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올림픽과 인연은 없었다. 김종일은 1984년 LA올림픽 결선에 올랐으나 8위(7m86)에 그쳤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선 허벅지 부상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한 그는 미국의 선진육상이론과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나이키의 주선으로 1989년 1월 워싱턴주립대에서 힘들고 고된 유학생활에 들어갔다.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며 체육대학 교료로 일해 학비 면제와 함께 월 1000달러의 급여를 받아 생활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캘빈대에 등지를 들었

는데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었나?
“가장 먼저 취업 의뢰에 회신을 해준 곳이 캘빈대다. 올림픽에 2회 참가한 점을 높이 평가해줬다. 캘빈대는 60~70명 규모의 육상팀을 운영해 매년 전미 대학 3부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까지 13년간 육상팀을 지도했는데, 전국대회에서 4차례 준우승을 했다. 또 4차례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았다.”

미국은 세계적 육상강국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32개의 메달(금 13·은 10·동 9)을 땀고,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선 29개의 메달(금 14·은 11·동 4)을 획득했다. 이런 미국육상의 저력은 대학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멀리뛰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1901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 세계기록이 나왔는데 그 중 미국이 13차례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세계기록도 1991년 마이크 포웰의 기록(8m95)으로 30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더 유명한 선수는 칼 루이스로 휴스턴대 재학 시절인 1984년 LA올림픽부터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남자 멀리뛰기를 4연패했다.”

-명성 높은 지도자들과 여러 인연을 맺었는데.

“칼 루이스를 15년간 지도한 탐 텔레즈 선생이다. LA올림픽과 서울아시안게임을 준비할 때 나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 도움닫기를 위한 스피드 강화, 발구름 직전의 네 발자국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는 LA의 USC에서 켄 마스다 선생의 가르침도 받았다. 또 교수였던 세단뛰기 선수였던 빅터 사니에프(1968년부터 올림픽 3연패) 선생과 1991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 10종 경기 3연패를 거둔 미국의 단 오브리언을 지도한 릭 슬론 선생 등에게 도약의 이론과 실재를 배웠다.”

-향후 국내에서 계획은?

“우선 국내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의 육상 여건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주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연간 예산은 15억 원인데, 미국은 400억 원이 넘는다. 각급 학교와 훈련 시스템도 상이하다. 어린 선수들에게 과하지 않은 훈련을 적용하면서도 최대치 효과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경찰 “우즈 사고원인 공개 못해” 골프황제에 대한 특별대우 논란



타이거 우즈

“황제에 대한 특별 대우”라고 봐야 할 듯하다. “일반인이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미국 경찰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밝혀냈지만 우즈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보안관실이 우즈의 교통사고 원인을 밝혀냈다”면서 “그러나 우즈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이 결정됐고,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우리는 우즈에게 사생활 보호를 포기할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V80의 블랙박스 통째로 확인한 사고 당시 주행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조지프 지아컬러니 교수는 “우즈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LA 경찰의 ‘특별 대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우즈는 2월 23일 LA 카운티의 내리막 곡선구간 도로에서 홀로 운전하다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리 복합골절로 큰 수술을 받아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다 현재 퇴원해 자택에서 재활을 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1879만원 성공마련 오락79 골프대회 스트로크 부문 한충열·신정은씨 우승



프리미엄 국산 골프클럽 브랜드 1879골프(회장 이동현)와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1879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공마련 1879 오락79 골프대회’가 3월 31일 경북 김천시 포도CC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160여 명의 아마추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차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 메달리스트(스트로크) 남자부 부문에서는 한충열 씨(72타)가, 여자부 부문에서는 신정은 씨(78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준우승은 김철홍 씨(77타), 여자부 준우승은 강진영 씨(79타)에게 돌아갔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펼쳐진 단체전에서는 김정성 팀(72.1타)과 금강지 팀(73.4타)이 우승과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1879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공마련 골프 대회는 포도CC를 비롯해 뉴서울CC(경기 광주), 군산CC, 골프클럽Q(안성), 센추리21CC(원주), 아라미르CC(창원) 등 전국 6개 골프장에서 순차적으로 총 50회 진행되는 아마추어 대회다. 다음 대회는 5월 센추리21CC에서 열린다. 김도현 기자

대한체육회, 초·중·고 학교운동부 장비 지원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가 선정한 약 180개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훈련용 장비와 용품을 지원한다. 대상 학교 모집 기간은 15일까지이며 희망 학교는 해당 시도체육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2인 이상 등록된 학교운동부로, 창단 이후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1년에 2개 대회 이상 참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 당 1개 운동부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체지방 측정기, 체지방률 측정기, 달리기 측정 시스템 등 과학적 훈련을 위한 현대적 장비도 입이 필요한 운동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1개 운동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림픽 종목, 기초 종목, 비인기 종목 위주로 진행되며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프로리그 종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및 스포츠 4대악(조지 사유화, 승부 조작, 성폭력, 입시비리)에 연루됐던 학교운동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선수들 성적 쑥쑥...행복까지 찾아주는 코칭 심리 전문가

정그린 그린코칭솔루션 대표이사

고진영 등 스포츠스타 심리 코칭
“선수들 행복한 모습에 보람 느껴”

그와 함께 한 선수들은 “나만 알고 싶은 멘털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선수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관계자들도 다 알 정도다. 그만큼 탁월한 ‘멘털 코치’이자,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신지애, 최혜진, 김경태, 배상문. 여기에 교포인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있다. 종목을 넓혀보면 탁구 신유빈, 피겨 차준환, 당구 이미래까지... 각기 다른 길을 걸은 이들은 모두 ‘코칭 심리’ 전문가인 정그린(39) 그린코칭솔루션 대표이사의 ‘고객’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코칭 심리는 잠재력을 일깨워 장점을 극대화하고 목표 설정 및 수행까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기업교육사업을 하며 리더십 코칭 등을 강의하던 정 대표는 2013년 골프 선수들의

미디어트레이닝을 맡아 스포츠계와 인연을 맺은 뒤 수많은 영광을 함께 했다. 이정은 6가 2019년 6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한 뒤 정 대표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그의 고객들은 정상에 서면 그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 대표는 “코칭 심리의 첫걸음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긍정적 마인드로 더 나은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그들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려고 한다.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케미’로 연결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함께 한 인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를 묻자 고진영을 떠올렸다. “고 프로 신인 시절이던 2014년, 2시간짜리 성향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처음 만났다. 고진영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선수는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무엇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단 한번의 만남으로 끝난 줄 알았던 고진영이 정 대표를 다시 찾은 것은 2018년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할 때 쯤이었다.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진영에게 정 대표는 “집착과 몰입은 다르다. 필드에서 여유를 갖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건넸고, 그 뒤 고진영은 필드 안팎에서 “행복한 선수가 되고 싶다”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도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요즘도 고진영은 매주 한 시간 이상씩 화상 통화를 한다. 사소한 생활부터 필드 위 순간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된다. 물론 둘만의 대화는 둘만의 비밀로 남는다. 그런 믿음 속에 고진영은 정 대표와 고민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며 행복도 찾았다.

선수들은 성적을 위해 그를 찾지만, 고진영처럼 그와 함께 하다보면 삶의 행복도 찾게 된다. 정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멘털 코치이면서 사업가인 정 대표는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헬스케어까지 세 가지를 묶은 사업구도를 구상하고 있다. 리더십 코칭에 더해 학생들의 성취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 코칭 등으로 사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정그린 대표이사

▲1982년 생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코칭심리 전공)·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산업심리 내 코칭심리 전공) ▲한국심리학회·한국코칭심리학회 정회원 ▲그린코칭솔루션 대표이사(2016년~) ▲이메일 greenj@hanmail.net